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5월 16일(주일) 제1344호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5월 22일 토요일 11시 '스페셜 라이딩'으로 막 올라
기독 OTT '풍당' 키즈 콘텐츠 제작 후원 캠페인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벌써 뜨겁다. 5월 14일까지 성도 910여 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은 5월 22일(토)부터 6월 20일(주일)까지 자전거, 걷기, 달리기, 러닝머신, 싸이클머신 등을 이용해서 운동한 거리만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후원금은 기독 OTT '풍당'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참가신청은 CGNTV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아래의 QR 코드로 하면 된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미션 캘린더(운동, 이동거리 기록용)와 기념품은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은 5월 22일(토) 11시 스페셜 라이딩으로 막 오른다. 스페셜 라이딩은 사전 신청자들이 16km(이촌 한강공원-잠수교-한남대교남단-영동대교남단-탄천-양재천)를 달리는 행사다. 11시부터 16시까지 자유롭게 참가하면 된다. 자전거 및 걷기, 달리기로도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스페셜 라이딩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참가신청서 7번 항목에 표시하면 된다. 스페셜 라이딩 코스에서는 대학청년부 자원봉사자 '풍당맨'들이 물과 에너지바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



〈달려라! 풍당 참가신청〉

유튜버 박위 형제(SNS공동체, 위라클)는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을 통해서 다음세대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콘

텐츠들이 많이 제작되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또한, CGNTV 후원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기간에 기독 OTT 풍당에 '달

려라! 풍당' 클래스가 개설된다.
문의: 02-796-2243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첫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줌(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지난 5월 11일(화) 첫 모임을 했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동체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이다. 5월 14일 기준으로 300명이 신청했다.

온라인커뮤니티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정현주 기자

사회선교부 제이홈 '입양위탁 홍보'

5월 15~16일 예매 입양위탁 특순, 제이홈 부스 운영

온누리교회가 입양의 날을 기념하며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한다. 5월 15일(토)과 16일(일)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에서 사회선교부 제이홈(입양위탁가족팀)이 주최하는 입양위탁 홍보 행사를 한다.

5월 15일과 16일 온누리교회 모든 주일예배에서 입양위탁 특순을 한다. 토요일 1부에 배에서 탤런트 신애라 집사가 특별간증을 하고, 제이홈 가족들의 버추얼 찬양 영상이 상영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는 입양위탁을 홍보하는 데스크가 설치된다. 입양위탁 홍보 데스크에서는 제이홈 사역 소개, 입양위탁 안내 및 기관 소개, 후원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사회선교부 제이홈 소속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는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들의 부모로 부르셨다”면서 “더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입양 및 위탁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관련기사 4면**〉.

사회선교부 제이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양과 위탁한 가정을 돕고 응원하고 있다. 정기모임, 세미나, 선한울타리사역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호종료아동(보육원, 그룹홈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 및 퇴소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역이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는 지금 온라인 심방 중

11월까지 공동체별 한 순씩

온누리는 지금 온라인 심방 중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했다. 11월까지 공동체별로 한 주에 한 순씩 온라인(비대면 영상)으로 심방하는 방식이다. 각 순의 개인 및 부부가 담당교역자와 온라인으로 만나서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역자로부터 영적 케어를 받는다.

온라인 심방을 경험한 성도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좋다. 김지광 성도(김포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온라인 심방이 시작되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서 “목사님께서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번 글에서는 여러 경제 용어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나눠보겠다. 첫째, ‘사유재산과 소유의 불균형’ 개념이다. 하나님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셨다. 십계명 중에서 “도독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것을 명확하게 한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면서 가져 가지게 된 모든 것 즉, 개인의 지적, 영적,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국적, 가문 등 그 모든 것은 사적인 소유 아래 있다. 하나님은 타고난 소유의 불균등을 그대로 인정하신다. 단 성경은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것의 관리를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사유재산의 관리로 증식한 재산과 그것을 소비한 방식에 대해서는 주인께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

둘째, ‘경쟁, 생산성과 이윤’의 개념이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므나씩을 맡기고 오랫동안 다녀온 후 결산하는 비유가 있다. 많이 남긴 종에게는 많은 고을을, 적게 남긴 종에게는 적은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일하지 않은 종에게는 그것마저 빼앗아 가장 많이 남긴 종에게 맡긴다. 성경은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

자할 것을 권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기 전에 테스트해서 통과하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권한다. 창세기의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을 잘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라는 명령이다. 이윤은 경쟁적인 상거래에서 생산성이 높을 때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과 창의력을 동원한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파동 같은 상황, 기업 간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같이 불공정한 거래가 가격 결정이나 이윤 분배를 불공정하게 만든다. 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경쟁과 이윤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생산성의 악화가 불가피하고, 결국 경제 활력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대출과 이자’ 개념이다. 성경에는 무언가를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빌려주는 것은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성경은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이 많은데, 대부분 가난한 자의 생계를 위해 빌려주는 경우이다. 달란트의 비유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왜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고 꾸짖는다. 성경은 여유 자본을 은행을 통해 더 생산성 높은 사업에 투자해서 그 이자를 받는 것을 불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급한 사람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금할 따름이다. 이슬람의 법에는 이자를 받는 것을 불로소득으로 생각하고 죄로 여긴다. 이슬람에도 은행이 있고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지만 은행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위선적 환경에서 부정이 꽃피기 쉽다. 성경적 정의는 채무자에게 빌린 것과 이자를 약속한 기간 내에 갚을 것을 요구하며, 갚지 못할 경우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성경은 채권자에게 은혜 가득한 공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공정한 상거래’ 개념이다. 성경에서는 상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거래하는 사람은 주머니에 두 개의 지울추, 두 개의 되, 두 개의 자를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정직한 상거래를 명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같은 잣대 즉, 같은 법 앞에 공정하게 대하는 정의실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선악의 절대적 기준,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어제와 오늘, 우리 편과 남의 편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자기모순을 범하게 된다. 오늘 같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자기 조건에 옳은 대로 행

하라는 격려를 받고 상대주의적 교육을 받아 ‘지킬과 하이드’처럼 다중인격화한 현대인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다섯째, ‘빈곤과 구제’ 개념이다. 성경은 거듭난 기독교인에게 이웃과 나눔을 강조한다(딤후 6:18). 또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등 4대 빈곤계층을 돕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아들을 통해 가족 안에서 상속되어 가정의 생계수단이 되었다. 이들 4대 빈곤계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구조적 빈곤에 해당하며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제할 때에도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는 다든지,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는 등 스스로 노력으로 얻는 방법을 제공하라고 하신다. 구제받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다수의 힘으로 부자의 수입을 빼앗아 나누는 제도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 성경의 경제정의는 수입, 능력, 분배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이며 기회의 균등이다.

묵상: 내 주변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경제적인 불의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나?

세계관 운동의 나침반 ‘세계관학교(OWA)’

창조론적 세계관과 역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 아담이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었다(창 2:19~20). 이름을 짓는 행위는 매우 지적인 행위이다. 상상해보라. 3,500 종이 넘는 포유류와 18,000종의 새들이 창조주의 권위에 순복해서 단 한 사람 아담 앞에 순순하게 나와 아담이 부르는 이름을 받고, 그 앞을 떠나는 장엄한 모습을. 아담은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였다. 타락 이후 온전하지 못한 영혼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의 오묘한 신비를 대할 때 감동한다. 타락 이전의 맑은 영혼과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아담의 목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신비한 동물들의 특성과 자연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 울림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새겨놓았을까? 경이로운 자연 세계의 경험은 그의 기억으로 물처럼 빨리 들어갔고, 그의 맑고 깊은 영혼의 샘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넘쳤으리라. 타락 이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도구였다.

아담 이후 세상을 바라보자.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땅이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을 용납하셨다. 그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드릴 제단을 거부하셨고, 성소를 버리셨으며, 대적들이 여호와와 집에서 소리 지르는 수욕을 당하신 것처럼 말이다(에 2:6~7).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왜곡되고 불완전한 이 땅을 여전히 자비와 능력으로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죄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누가 마음속에 지각을 두었느냐?”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음성이 폭포수 같이 떨어질 때 욥이 영적인 고백을 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욥 42:6).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은 영적 예배로의 이끄심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전 12:1) 명령하신다.

현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자녀들

에게 던져보자.

“내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지?”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환경이다. 창조주에 대해 생각해볼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다. 인간들의 지혜를 뽐내듯 높은 건물들과 ICT 기술의 총체적 산물인 스마트폰으로 가득 차 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현란하고 심오한 음식 맛은 셰프의 실력에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욥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자녀들과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다가온다.

“그 높은 건물을 이 넓은 우주 공간으로부터 지탱하는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머리카락 두께의 백만분의 일 정도의 작은 원자들은 누가 만들었고, 규칙적인 배열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음식에 사용된 채소 하나라도 너희가 씨 없이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느냐?”

과학이란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험해보는 거룩한 행위이다. <조화로운 세계(Harmonics of the World)>라는 책에서 행성운동 제3법칙을 발표한 천체물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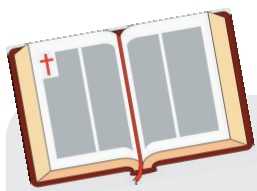
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자연을 나오게 하신 친절한 창조주이시다.”

창조론적 세계관은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함께 이 땅을 복구하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불교의 점유물인 템플스테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제도로 교회가 찾아와야 한다.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환경 이슈에 대한 경종을 촉발시킨 1972년도 로마클럽의 보고서보다 탁월한 보고서로 교회가 먼저 발표했어야 했다. 2015년 세계 196개국 이 참가해서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7개의 세부적 지침을 채택한 파리기후협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시작했어야 했다.



신무환 장로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 시대에 불법이 성행하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범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문명이 붕괴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됨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린 영혼들을 유기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죄와 상처로 깨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고 훌륭한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깨어진 관계가 존재합니다. 완벽한 가정이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 깨어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가정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으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물질을 많이 쌓으면 가능할까요? 그 모든 것이 도리어 인간의 죄악을 감추고, 교활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 시킵니다.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과 자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녀에 대한 명령과 부모에 대한 명령이 모두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선적인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부모가 먼저 복음 안에서 굳게 세움받지 않으면 그 부모를 통해 자라나는 자녀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어령 교수님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고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날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들을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각나는 모든 추억과 못다한 이야기를 더해서 쓴 책입니다. 책 제목에 ‘굿나잇 키스’가 들어간 이유가 서론에 나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열심히 글을 쓰는데 집중했던 시절,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재에 들렀습니다. “아빠, 굿나잇”하고 인사를 하는데, 책 쓰는데 몰입한 나머지 서재문이 열리는 것도, 딸의 발소리도 듣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채 “아빠 굿나잇”이라는 음성만 듣고 그냥 손만

흔들며 “굿나잇”하고 대답만 하신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 것입니다. 딸이 인사할 때마다 30초만 시간을 뺏으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내지 못한 후회를 하면서 책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30초의 시간을 기적을 통해 다시 허락하신다면 이제 나는 글 쓰는 일을 멈추고 뒤돌아 딸을 안아 주며 딸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귀한 책입니다. 책 뒷부분에는 고 이민아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저는 늘 아빠가 어려웠어요. 아빠가 늘 바쁘시고,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외계인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아빠에 대한 저의 사랑은 동경과 그리움 같은 것이었어요. 아빠가 곁에 계셔도 만질 수 없고,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거리감이 저를 늘 외롭게 했어요. 아빠의 마음에 들 만큼 똑똑하고 유능한 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나를 깨닫고 나니 그 모든 쓸데없는 외로움이 어리석게만 느껴져요. 아빠에게 저는 딸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지, 저의 어떤 능력이나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빠의 깊은 마음을 몰랐기에 혼자 사랑에 늘 굶주리고 목말라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과 아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준 축복의 헌사가 이신(Ethan)이에요. 저의 마음에 차지 않는 아이, 저를 늘 실망시키는 아이, 저를 늘 아프게 하고 걱정시키는 아이. 그 아이와 10년을 씨름하면서 슬퍼하고 노하고 걱정하고 답답했던 시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낳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천하보다도, 제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와 똑같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제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에게는 제가 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모든 부모에게는 이어령 교수님 같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보낸 많은 날 중에서 후회스러웠던 때가 한순간도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

녀에게는 고 이민아 목사님처럼 부모가 됨으로써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체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섭섭해하지만, 부모는 늘 자녀에게 베풀어 사랑이 적음을 미안해하고 아쉬워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여인이 어머니로 바뀝니다. 또한 한 남자는 아버지로 바뀝니다. 가장 먼저 그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끊임없이 줌도 빛진 자의 마음으로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일부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영혼이 부모를 통해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 그 사랑이 왜곡되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다면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 그 통로가 되기에 너무 많은 죄와 상처로 무너지고, 얼룩진 부모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해야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

부모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반응과 태도에 지나치게 왜곡된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쌓여 있는 분노는 대개 부모의 왜곡된 감정으로 인해 쌓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녀의 행동에 과민반응하고, 부모의 감정이 지나치게 왜곡되어서 자녀가 상처를 받고 분노가 생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사랑할 때 관대하기 마련입니다. 손주들이 예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미성숙과 불순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인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 가졌던 소유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분명히 자녀의 자녀이고, 자신의 자손이지만, 자녀에게 가졌던 소유와 집착,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보다 관대하고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부모의 왜곡된 감정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대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상하지 않은 길로 가면 실망하고, 자녀의 자유를 빼앗고 싶어합니다. 모든 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둘째,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부모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할 때 자녀가 변화됩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부모가 교훈과 훈계를 만들어 자녀를 양육하면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고,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원인은 부모가 만든 철학, 규율, 법칙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이 자녀에게 맞지 않듯이 부모에게 적합했던 인생 철학이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또 하나의 가족 ‘교회’

가정위탁 제도를 아시나요?

가정위탁이 생소한 이유 ... 잘 몰라서,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전국의 위탁 아동 11,141명인데 일반가정위탁 고작 8.2%



이현전 권사네 가족이 가정위탁한 '믿음'이(사진 가운데)와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질병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다.

가정위탁 제도가 생소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가정위탁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그렇고, 위탁한 아이를 입양처에 보내고 나서 겪는 상실감과 헤어짐에 대한 슬픔 때문에 가정위탁을 꺼린다.

이현전 권사네와 믿음, 소망, 사랑이

이현전 권사(서울성도교회, 61세)는 2001년 3월 31일 처음으로 가정위탁을 했다. 믿음(가명)이라는 남자아이였다.

“믿음이는 심장에 기형이 있는 5개월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아이 특히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동들은 입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위탁하고 7개월 즈음 지났을 때 입양처가 정해졌다. 좋은 부모, 좋은 집으로 가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소망(가명)이는 믿음을 입양 보낸 지 두 달이 조금 안 됐을 때 만났다.

“입양기관에서 소망을 저희 가정에 맡기면서 하는 말이 ‘아이가 너무 어두워서 입양

보내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을 보내고 겪은 상실과 슬픔이 소망을 키우면서 상쇄됐다. 이현전 권사와 가족들은 소망이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 사랑을 말 못하는 어린 아기도 느꼈나 보다.

“우리 집에 오고 나서 2~3주 정도 되니까 아기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표정이 좋아지고, 잘 웃으니까 바로 입양처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소망을 입양 보내고, 세 번째 아이 사랑(가명)이를 위탁했다.

“보통 입양기관에서 100일이 넘는 아동을 위탁보내는데 사랑이는 생후 5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입양기관에서 돌보기 힘들 정도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경우에는 일찍 위탁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입양기관에서 사랑이한테만 집중할 수 없으니까 빨리 위탁을 보낸 상황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현전 권사네의 지극정성 보살핌이 사랑이에게도 통했다. 그 예민하던 아이가 밤에도 잘 자고, 웃기도 잘 웃는 아이로 변했다.

사랑이는 목사님 가정에 입양되었다. 자식처럼 말아 키운 아동들을 입양 보낼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마음이 헛헛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전 권사네는 위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믿음, 소망, 사랑이를 위탁하면서 우리 가정이 받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사춘기 시절 믿음, 소망, 사랑이를 돌보면서 기쁨과 책임, 사랑을 깨우치더라고요. 질풍노도 시절을 무탈하게 넘긴 것은 덤이고요(웃음). 얼마 전에 사랑이를 만났는데 양부모와 형제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것을 보고 ‘사랑이

처럼 믿음이와 소망이도 사랑을 먹고 잘 크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현전 권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몇백 배로 사랑을 돌려 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제도의 순기능

가정위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 양육), 친인척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가정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이다. 전국적으로 11,141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다(2019년 기준). 대리양육가정위탁 66.7%(7,426명), 친인척가정위탁 25.1%(2,801명), 일반가정위탁 8.2%(914명) 순이다.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그 의미가 상당하다.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며, 어른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 분위기를 제공하고, 가족 간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사회화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역 칼럼



심형래 센터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미국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원숭이 실험’을 했다.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엄마에게서 분리해서 성장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분히 구비된 환경에서 키웠다. 온도도 적당하고, 배고플 때 먹이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잠자리도 안락한 공간에서 양육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불안이 심하고, 이성애 관심을 갖지 못했다. 임신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엄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 실험은 성장 과정에서 애착과 관심

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역할은 새끼가 태어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엄마의 역할을 경험했을 때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의 보살핌이 왜 필요한지를 새삼 느낀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가정위탁은 바로 그 아동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지난 한 해 809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에 보냈다. 그중에서 약 8%인 63명의 아동만이 일반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위탁아동들의 양육을 위해서

또 하나의 가족, 가정위탁

민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탁아동 양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탁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아동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아동들은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 곁에서 선택과 결정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누군가 대신해줘야 한다. 그 누군가가 바로 위탁 부모들이다.

모든 아동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당연한 아동의 권리가 어른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 자신

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은 세상에 원망과 불신을 느끼게 된다. 그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원망과 불신 대신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만들어 줘야 한다. 영아기 때부터 이러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영유아에게는 애착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한 사람의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애착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일관된 반응이다. 양육자는 일반적으로 엄마이다. 그러나 꼭 엄마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일관된 유대감과 신뢰감을 갖도록 양육하면 애착형성이 가능하다. 많은 아동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당신의 따뜻한 품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가족, 가정위탁이다.

그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출 청소년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국내 청소년 19만 명 가출 경험, 가장 큰 이유 ‘가정폭력 및 불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금자리 ‘온누리청소년센터’

2019년 한 해 청소년 19만855명이 가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출 청소년’이라 부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구제불능이라며 손가락질도 한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집을 나왔는지는 모른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폭력, 가정불화, 가정해체 등 가정문제 때문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불러야 옳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포근하고 아늑한 집도,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도 없다. 학교 끝나면 돌아갈 집,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퇴근길 아빠가 사오는 치킨 한 마리도 없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금자리다. 꿈만 같았던 지극히 당연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포근한 잠자리도 제공한다. 학업 지원은 물론이고 자립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가출 청소년이 아닙니다.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온누리청소년센터 김형근 소장이 인터뷰에 앞서 단어를 정정했다. 가출이라는 단어가 가진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다. 김형근 소장은 “가출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4~6학년), 중·고등학생 545만 명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5%나 됐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청소년 약 19만855명이 가출한 것이다. 실제로 가출 경험이 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거나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감안하면 가정 밖 청소년은 더 많다.

가출(家出)은 ‘가정을 버리고 나감’이라는 뜻이다. 가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가출 청소년에게는 비행 청소년, 문제아, 예비 범죄자, 사회부적응자 등의 편견 섞인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에서 만 15세 이상 경기도 거주민 809명을 대상으로 ‘가출 청소년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 71%(573명)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출 청소년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 730명을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49.7%)’이었다. 이어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무려 24.5%나 됐다. 가정 밖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정폭력과 불화 등 가정 문제로 인해 집을 나왔다. 집을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들의 가출을 단순한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부터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말 그대로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가리킨다.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다.

끓던 배가 부르니 꿈이 생겼다

조다윗 학생(18살, 가명)도 가정 밖 청소년이다. 매일 아침 좁고 캄캄한 방에서 눈을 떴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 혼자 저와 누나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모텔이나 여인숙 같은 곳에서 지낼 때가 많았어요. 아빠는 일을 나가셔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고요. 매일 좁은 방에서 누나랑 멀뚱히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밥 한 끼 때우는 일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항상 배가 고팠어요. ‘오늘은 뭐 먹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학교에 못가는 날도 많았고요. 두세 달 정도 학교를 안가니까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 저희 가정환경을 보시고 청소년 쉼터에 연결해주셨어요.”

청소년 단기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3년 전 온누리청소년센터로 이관됐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됐다. 끼니 걱정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됐다. 학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다.

“더이상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끼니때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못 먹었던 기억 때 문인지 밥을 항상 많이 먹었어요. 그 덕분에 3년 사이에 키가 20cm 넘게 컸어요(웃음).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그런지 학교생활도 재미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등교하고, 성적 걱정도 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도 했어요.”

끓던 배가 부르니 꿈이 생겼다. 제빵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졌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 와서 다른 걱정 없이 공부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제과제빵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제 가게도 차리고, 봉사도 하고 싶어요. 저처럼 가정환경이 어려워



온누리청소년센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다.

서 굶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건강하고 안전한 새 울타리

문요셉 형제(22세, 가명)는 날마다 부모와 갈등을 겪었다. 집에서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셨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항상 어두웠습니다.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졌고요. 집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저에게 집은 가시방석이었습니.”

스무 살이 되자마자 무작정 집을 나왔다. 그 때부터 쉼터 생활을 시작했다. 그제야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집보다는 백배 낫더라고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거든요. 쉼터에는 저처럼 가정 문제로 집을 나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쉼터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다리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지내고 있던 쉼터에는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생활할 수 없었

다. 바로 그때 온누리청소년센터와 연결됐다.

“다리 수술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온누리청소년센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 훈련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문요셉 형제는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난생 처음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

“원래 가족이 아프면 서로 보살피려고 도와주잖아요? 저에게는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진짜 가족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부모님처럼 제 상태를 살피주십니다. 같은 방 동생들은 저를 친형제처럼 여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김형근 소장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세요. 작은 관심과 조그마한 도움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청소년센터가 가정 밖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고,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청소년센터와 함께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새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후원문의: 031-399-7997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김성묵 장로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
본부 이사장)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든든해진다. 대한민국이 작지만 강한 이

유는 좋은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다. 만일 공장에서 불량제품을 내놓는다면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경제도 무너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방식, 건전한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가진 자녀들을 양육해서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외국 속담에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있다.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말이다.

사회화 학습의 장(場) ‘가정’

우리 사회는 요즘 계속해서 강력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자녀, 자녀를 죽이는 부모, 자녀들에 대한 성폭력, 학교 폭력, 힘없는 부녀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왜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 답은 하나다. 가정의 문제이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무너진 가정, 역기능적 가정이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자라거나 학대당하거나 부모의 부재에서 자란 자녀, 무분별한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찌면 이미 반사회적인 요소를 잉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자극이 있고 우리는 그 자극에 반응한다. 그래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자유의지가 있다. 동물은 자극이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문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본인의 자유의지와 다르게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대로, 학습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수 있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 엉뚱하게 반응하거나 과격하게 반응해서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질 수 있다. 무서운 것은 이 감정 반응의 패턴이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면서 ‘나는 커서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처하면 학습된 대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나 스타일, 감정 반응의 색깔 등은 가정에서 그 틀이 결정된다.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아버지의 수준이 가정의 수준을 결정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그의 책 〈마인드 세트〉에서 “인간은 세팅된 틀에 따라 사물이 나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때문에 인생을 축내고 사는데, 그 틀은 상처나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의해 세팅되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삶의 모습에서 경험되고 학습되며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최고로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인간은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절대로 개인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뛰어난 개인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훌륭한 사회인이다. 개인으로 태어나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가정은 사회화 과정을 경험시키고 가르치는 첫 번째 교실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사회화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적합하며 오랜 세월을 거쳐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 증명된 언어, 행위, 태도, 가치 등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나 선생님 등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진정한 자유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배려할 줄 알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

회이다.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고,
아버지의 수준이 가정의 수준이다**

가정에는 세 가지 체계가 있다. 부모, 부부, 자녀이다. 이 세 가지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가 ‘부부’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다. 부부가 하나 되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가정의 경우, 남자들은 부모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여자들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부부 일심동체가 되지 않고 있다. “부모형제는 수족과 같아 잘라버릴 수 없지만, 여자는 의복과 같아 바뀌입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내의 분노와 한(恨)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올바른 자녀 양육도 이뤄지지 않는다. 훌륭한 사회인이 나오기가 매우 힘든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자녀의 어머니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자녀의 아버지인 남편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자녀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서 사랑과 존중, 배려와 권위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경험하며 자라야 한다. 부모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부모공경의 모습(효)을 보면서 자녀들은 이른 공경이라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를 습득해간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건전한 도덕성,

성정체성을 지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간다. 사랑과 존중, 배려와 권위는 인성, 사회성, 영성의 뿌리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져갔다. 아버지는 돈 벌러 공장으로 갔고,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고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아버지들은 아예 가정 경영에 참여할 시간조차 없어졌고, 돈만 벌어서 주면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정 경제는 아버지, 가정 경영은 어머니’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가정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두 기둥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다르다. 어머니가 개인적인 안전과 주의 깊음의 행동을 강조한다면, 아버지는 성취와 독립,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도록 격려한다. 어머니가 감싸주고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버지는 행동의 규범을 정하고 지키도록 독려하는 존재이다. 어머니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면, 아버지는 새끼를 밖으로 내모는 모습이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정 경영의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어느 누가 대신해서도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자리이다. 사표를 낼 수도 없고, 사표를 받아주지도 않는 자리,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이다. 남자로 태어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자녀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운전자이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대로 아들도 운전하기 쉽다. 아버지가 난폭운전을 한다면 아들도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과속운전을 한다면 아들도 과속운전을 할 것이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아들도 음주운전을 할지도 모른다. 어 깨너머로 운전을 배우는 일이 위험하다. 잘 배워야 한다. 진짜 사나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바바라 부시 여사는 대학 졸업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장래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아버지의 수준이 가정의 수준을 결정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성과 좋은 만남의 기준

“결혼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배우자 기도도 하고 있고, 소개팅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주저한 적도 있고, 비기독교인이라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요? 구체적인 조건을 들어가며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괜찮은 사람인데 비기독교인이면 거절해야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용기 내어 질문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결혼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는다. 부족한 답변이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백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며 답을 쓴다.

첫째,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참고해보자. 예수님께서 시가장애인을 고치실 때 “내가 무엇을 네게 해 주기를 원하는가?”(막 10:51)고 물으셨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모르시기에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그의 소원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 그의 입술을 통해 그 소원을 듣기 원하셨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듣기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최대한 겸연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 대한 100가지 기도제목이 있으면 그대로 기도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주실 것이다. 반대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제목이 한 가지도 없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내 영혼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기도제목 몇 가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기도는 항상 기도의 시간을 통해 조율된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한다.

둘째, ‘배우자 후보로 크리스천만 만나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크리스천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는 비전을 품는 것이 좋다. 율법도 제사장도 없던 창세기 시대를 보면 가정이 곧 예배의 처소이자 지성소였다.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자.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복음을 꼭 전하기를 권한다. 성경적으로 가정은 예배의 처소가 되든지, 선교지가 되든지 둘 중 하나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불신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 선교사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급적 결혼 전에 전도하는 것이 좋다.

셋째, ‘배우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만남과 결혼, 갈등과 해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몇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상대방과 연애를 하지 않고 확인을 가질 수는 없다. 짝사랑을 하면서 혹은 직장 동료나 교회 친구 수준에서 상대방에 대해 확인을 가졌다면 매우 위험하다.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인 교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

르게 되는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확신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만 가능하다.

배우자에 대한 확인까지는 아니지만 ‘이성과 좋은 만남의 기준’은 있다. 만남을 거듭할수록 서로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다. 우리가 성령님과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적인 성장을 하듯이, 연애 상대방을 만나면서 나의 정서와 영성에 좋은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면 좋은 만남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만남을 축복하고 싶다. 반대로 아무리 애쓰고 애절해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 대신 퇴보, 행복 대신 상처를 거듭해서 받고 있다면 그 만남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서진 목사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충분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친밀감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는 50대 남성입니다.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실습을 겸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니 요즘은 일에 폭 빠져있습니다. 종종 주말도 없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직장 없이 지내다가 몇 년 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부부관계 지형의 변화가 생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는 많은 시간을 남편과 함께할 수 있었고, 남편의 친밀함을 누리는 마음의 탕크가 충분히 채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부부의 패턴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가정의 고정된 패턴이 흔들리고 남편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화와 짜증이 극에 달하는 시점까지 왔다.

부부는 많은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어떤 문제는 흡족하지 않더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때로는 남편의 의견을 따를 때가 있고, 때로는 아내의 의견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서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심각한 심리적 역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항해를 하는데 갑작스레 폭풍을 만난 것처럼 마음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만나기도 한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당황, 좌절, 분노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대립은 부부관계의 성숙을 불러온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서 다룰 수만 있다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아내가 직장 일에 너무 몰두해서 화가 난 남편의 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하나는 아내를 향한 서운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쓰러운 마음이다. 남편은 늘 함께해 주었던 아내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안정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데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관심이 남편과 가정이 아니라 일과 직장이었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왜곡된 신념이 애정관계에서 이탈된 ‘방치된 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정서가 남편이 분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탐색해 보면 좋겠다. 일반적 수준의 부부라면 아내의 우선 순위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화와 짜증이 안쓰러운 마음의 반대된 표현이 아닌지 살펴볼기를 바란다. 청소년 시기에는 우울함을 짜증이나 분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왜곡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혹은 남편이 아내가 직장에서 애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안쓰러운 마음을 분노나 짜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다. 남편이 진심으로 느끼고 비라는 것을 성숙한 톤으로 아내에게 전달하면 좋겠다.

아내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회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돌아봐야 한다.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회피나 도피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외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취미, 모임, 직장, 일 등 외부의 다양한 활동이 힘든 결혼생활의 도피처가 되었다면 관계회복을 위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부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다. 함께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 가야 한다.

중년이 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생산성(Generativity)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창조성을 발휘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내가 직장생활에 몰두해 있는 것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면 남편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직장생활하는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이다.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되면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여기’에서의 마음을 살펴볼기를 바란다.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절충과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면서 친밀감을 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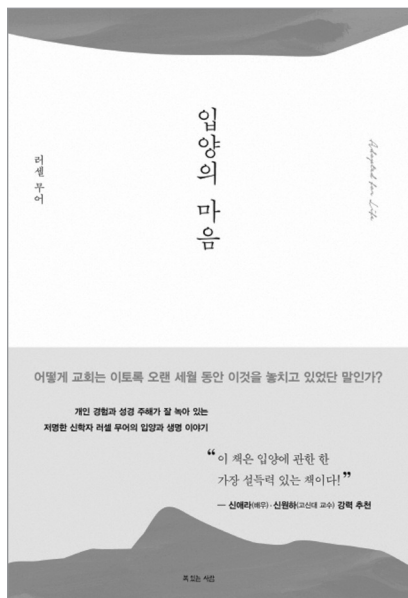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장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는 ‘복음’



〈입양의 마음〉

러셀 무어 저 | 복 있는 사람 | 14,000원

2019년 여름, 둘째 딸의 출산예정일을 8주 정도 앞두고 천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아기의 몸무게가 한참 미달인 데다 몸이 너무 작고, 임신주수에 따라 당연히 되어야 할 성

장이 몇 주째 멈춰 있다고 했다. 이대로는 태중의 아기와 작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웬만한 일에도 밝고 긍정적으로 말해주셨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온 가족과 여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아기를 살리기 위해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 산부인과 선생님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다. 그렇게 8주 뒤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2kg 대의 둘째 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뒤로 한 생명이 가진 가치와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기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한 아기를 낳기 위해, 지키기 위해 남모름 시간을 보냈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분의 추천으로 읽은 오늘 소개할 책, 러셀 무어가 지은 〈입양의 마음〉이 생각났다. 입양을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 자녀를 찾아주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입양이야말로 부모가 된 어머니의 성경적인 송고한 사랑, 빛과 소금으로써 한 아이

를 지켜주고 그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창문이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상황의 어머니가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따라 잉태한 아기를 끝까지 지키고 낳은 것이 그 아기가기 때문이다.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말씀처럼 가정을 이루도록 동역하는 통로가 입양이다. 자칫 어둠 가운데 홀로 버려질 수도 있었던 한 아기를 품고 자녀 삼는 입양 가정은 빛과 소금으로써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다.

한 아이의 세상이 입양가정을 통해 바뀌게 된다. 입양가정이 있었기에 한 생명이, 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이보다 더 복음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있을까?

입양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생명을 지켜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이자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는 복음이다. 저자는 입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입양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입양에는 생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양은 우리 모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5절을 통해 자신은 고아들에게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당신 주변의 이웃, 누군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행정적인 입양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입양의 관점에서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책을 읽으면서 생명과 가정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의 입양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축복한다.



윤준석 목사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연택트시대 新 신앙생활

인스타그램 교회 ‘페이지처치’



인스타그램 게시물로도 예배를 드린다. ‘웹페이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을 담은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지처치(Page_Church)에는 4만5천 명의 팔로워가 있다. 매일 페이지처치에 업로드되는 게시물에는 운영자 신재용 목사의 묵상이 담겨 있다. 4만5천 명의 팔로워가 A4 반장이 채 안 되는 짧은 묵상을 읽으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깔끔하고 예쁜 이미지로 편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지처치의 묵상은 구겨진 종이에 편집을 한다. 운영자 신재용 목사는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에 최고의 이야기를 쓰신다고 강조한다.

“삶은 책이다.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첫 페이지를 펴시고 이야기를 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삶의 주인공을 잊은 채 내가 펜을 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더 늦기 전에 삶의 저자를 바꿔야 한다. 쥐고 있던 펜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페이지처치가 전하는 메시지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목을 끄는 화려한 게시물도 아니다. 그러나 편리한 접근성과 높은 전달력이 있다. 페이지처치가 연택트시대 新 신앙생활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부인 김세지



‘매년 2천회 이상 가정심방, 월 2회 상갓집을 찾아가 시신에 염(殮)하기’

선교사 보고에 기록된 전도부인 김세지 여사의 활동이다. 복음을 전하고 과부를 돌보는데 일생을 바친 김세지 여사의 삶이 참으로 귀하다. 김세지 여사는 어린 과부였다. 19살에 남편을 잃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다 돌아비였던 김종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남편 김종겸 친척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양 여성선교를 담당하던 노블(M.W.Noble)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1907년 2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자신의 죄를 뜨겁게 고백하고 새사람이 되었다. 노블(M.W.Noble) 선교사가 당시 상황을 ‘세디의 고백’(Sadie's confession)이라는 글로 남겼다.

“세디는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울면서 손으로 마루를 쳤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마음을 억눌렀던 죄를 회중들 앞에서 털어놓았다. 세디는 개종하기 전 어두운 생활을 하던 당시 죄도 회개하였다.”

김세지 여사는 1908년 여자성경학원을 졸업하고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했다. 과부회를 만들어 과부를 구제하고, 대한애국부인회 활동을 하면서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1919년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남한에서 생활하다 소천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순간의 무리들’

이곳이 바로

순간의 무리들이 너머를 더듬고

깊이 안기고 싶어 두리번거리는

덧없는 기항지이지

삶의 외침이 풍랑에 섞이는데

기쁨과 슬픔이 노래하며 춤추지

밀려온 파도가 절벽에 부서질 때

순간은 흔적을 모아 무늬를 짜지

바로 여기서

어디선가 보내온

순간의 무리들이 끝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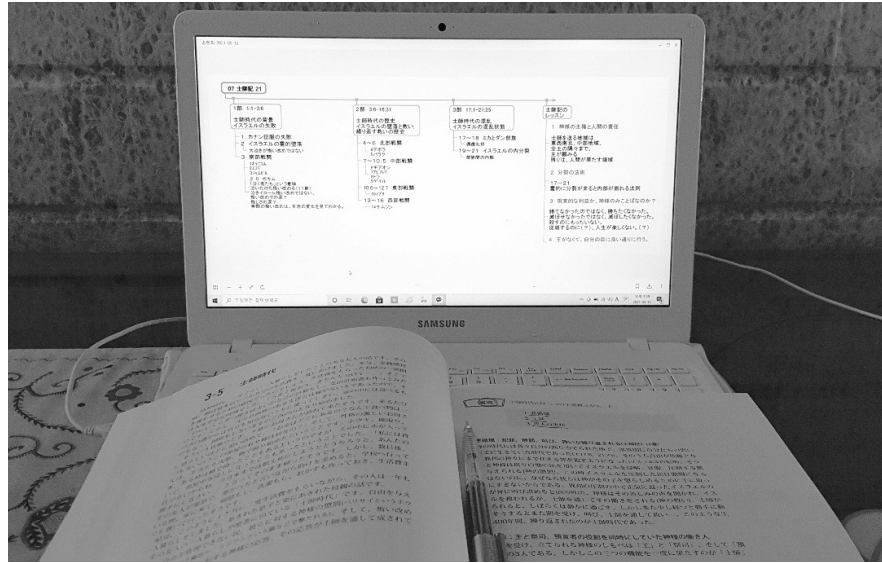
영원의 문을 두드리지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예배부 '40일 성경 탐구'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돌아켜봤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립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함께 모여 즐거이 예배하고 삶을 나누던 교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했다. 때로는 먼 외계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서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때를 분별해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 많은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포장되어 있던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다. 멈춰 선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올해 초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내가 속한 일본어예배부에서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눴다. 일본어예배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성도들, 유학생들, 일본을 사랑하며 일본 선교를 꿈꾸는 한국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하나 되어 일본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



일본어예배부 '40일 성경 탐구'에 참가한 송현화 성도의 강의노트.

다. 일본어예배부에서는 90일의 기적이 진행되는 동안 '40일 성경 탐구'를 병행했다. 내게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였다.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깊게 탐구하는 과정은 정말 큰 도전이었다. 김철희 목사님의 쉽고 자세한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

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역사적 흐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 지체들과 일본어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강의와 더불어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한 나눔 시간에서도 풍성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다. 서로를 격려하고,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몇 년 전 혼자 일본어로 성경통독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여서 완주할 수 있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고 풍성했다. 공동체 지체 모두가 일본어예배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일본어 40일 성경 탐구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지금까지 나는 방언을 사모한 적이 없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지 못했다. 그런 나에게 성경 탐구를 마치는 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때와 같은 감격이었다. 나를 묶고 있던 억압의 사슬이 풀렸다. 큰 은혜의 선물 덕분에 기도가 더욱 즐거워졌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매순간 기대된다. 지금 나의 소망과 기도는 일본 러브소나타가 재개되는 것이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일본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일본 교회의 부흥이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 송현화 성도(일본어예배)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큐티스쿨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올해 초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다.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을 즈음 순장님께 공동체 큐티스쿨 과정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장님께서 함께 하자고 권유 해주신 덕분에 나도 동참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15년 전 새신자등록을 했는데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과정은 지난해에서야 수료했다. 큐티가 기초과정이라는 사실도 지난해에 알게 되었다. '언젠가는 큐티스쿨에 참여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순장님의 권면으로 큐티스쿨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는 탓에 섬기고 있던 찬양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안타까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역이 필요했다. 비어있는 시간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큐티스쿨이 제격이었다. 이번 기회에 큐티를 더욱 확실하게 배우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큐티스쿨은 참 좋았다. 공동체별로 진행된 덕분에 낯익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온라인 화면에 가득했다.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없



윤상일 성도(서대문공동체)가 큐티스쿨을 수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다.

어서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과정이 편안했다. 큐티스쿨 강의를 듣는 동안 순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동영상으로 듣는 목사님의 강의도 참 좋았다.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큐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조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내가 하고 있는 큐티의 부족함과 보

완해야 할 점을 깨달았다.

큐티스쿨 마지막에 읽었던 하용조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하나님과 나누는 진정한 교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큐티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큐티를 생활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

로 묵상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라도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다.

큐티스쿨 과정 중에 서영록 총무님이 가족상을 당하셨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조원들을 챙기시고, 사명을 다하신 총무님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신 총무님의 믿음은 정말 본받고 싶은 참된 믿음이다.

나 또한 개인적인 기도제목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광야에 있는 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큐티스쿨을 마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윤상일 성도(서대문공동체)



코로나19, '전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훈련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나를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차갑게 대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하나님을 만난 나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말씀을 모르던 내게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찾아오셨다. 나를 온누리교회로 부르시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내게 찾아온 또 다른 기적은 전도폭발훈련을 받은 것이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사랑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전도폭발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냈다. 말씀에 순종한 나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전도할 힘을 주셨다. 전도폭발훈련 1단계 훈련을 받으면서 완고했던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다. 전도폭발 2단계 훈련을 받으면서 남편과 두 딸에게 복음을 전했다.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복음전문과 말씀을 가슴 깊이

“암투병 중에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전체복음제시시범 /Just EE 전문 /전도폭발복음제시전문 #10

사진은 전도폭발훈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복음제시시범' 강의.

새길 수 있었다. 전도폭발 3단계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전도를 잠시 미루려는 내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 유튜브 채널에서 복음제시시범 영상을 찍을 기회를 주셨다. 자연스럽게 전도폭발 3단계 훈련도 받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도폭발훈련이 내게 큰 도전을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것도 방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지난해 12월 악성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새벽예배 주제가기도 했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나를 휘감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 다행”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나는 슬퍼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내 안에 새겨진 복음과 영생, 천국을 소개했다. 병원에 입원하던 날 아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선배와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는 진통제의 힘을 빌려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복음을 전했다. 시누이가 결신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했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늘 냉소적으로 반응하던 선배와 친구들도 그날 복음을 듣고 결신했다.

내가 병원에서 지낸 3주 동안은 '세이레 기도회' 기간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 받으면서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다. 은혜 속에서 1차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었다. 맞은 편 병상의 한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에는 6차 항암치료가 있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체력과 마음을 주셔서 전도폭발 4단계 훈련에도 참가하게 하셨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었다.

/ 유은진 성도(마포공동체)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함께 예배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했다

J4U청년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실 온라인 수련회가 처음에는 와 닿지 않았다. 생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와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번 온라인 수련회가 얼마나 좋으려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까?'라고 생각했다. 사단의 공격에 지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연합할 때 강함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처음 시도해보는 온라인 수련회라서 그런지 '이게 뭘까?' 싶었다. 불신과 의심,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J4U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온라인 수련회를 기다렸다.

'수련회 키트' 포장도 기쁜 마음으로 했다. 자신의 방에서 예배와 수련회에 참가하는 J4U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간식, 기도등불, 노트, 티셔츠, 성찬키트를 포장하면서 은혜가 가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에서 대학청년본부장 김승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득하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수련회가 시작됐다. 줌(Zoom)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 J4U청년부 지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이고, 은혜였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은혜를 얼

마나 받고 싶었는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뜻이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부여주셨다.

특히 이번 온라인 수련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할 수 없었던 성찬식과 안수기도를 했다. 이 시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나 보다. 지체들의 얼굴에 기대

와 감사가 가득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되새겼다. 안수기도는 줌(Zoom) 소그룹 방에서 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J4U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소한 준비부터 말씀선포, 찬양, 기도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한계가 문제 될 수 없었다. 각자의 방에서 수련회에 참가했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했고, 함께 울었고, 함께 기뻐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요 16:24).

우리가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2박3일 동안 충만히 임재하셨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시고, 크고 강하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이 은혜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 이보라 자매(J4U청년부)



사진은 2020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부모님들.

부모님들께 세례 준다!

'행복드림콘서트' 세례식 5월 23일 오후 7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부모들님께 세례를 준다. 행복드림콘서트 결신자 세례식이 5월 23일(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오후 7시)에서 진행된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결신서를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행복드림콘서트'를 시청하면 된다. 결신서는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행복드림콘서트를 시청한 부모님이 세례받기로 하면 세례간증문을

5월 2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부모님의 1분 간증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5월 16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세례식 예배에서 활용한다. 이메일: graceshj@naver.com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202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어머니학교 5월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5월 PP(Power Prayer)기도회가 열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5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파워임팩트 (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청소년반과 부모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반은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모반은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5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회비는 10만 원(부부 2인 신청하면 15만 원).
문의: 02-3215-3532

다문화 학생들에게 활력 불어넣는다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와 FCA의 연합사역

안산M센터 산하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기독교 선수회(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Korea; 이하 FCA)와의 협력사역 덕분에 활력을 얻고 있다.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FAC와 동역하고 있다. 김민국 사역자(FCA)가 매주 다문화 학생들에게 축구와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8일(토)에는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기독교선수회가 주관한 다문화 풋

살경기에 참가했다. 이용정 학생(중3)은 "축구를 배우고, 신앙이 생기면서 체력이 향상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사역자(FCA)는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축구와 신앙을 전수 받는 다문화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극빈상태 개선사업

3년 동안 여성가장 300가정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르완다에서 극빈상태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KOICA와 협력해서 3년 동안 300가정이 극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극빈상태 개선사

업은 국민곤 가정의 생활기반과 생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기본육구 충족, 생계역량 강화, 재무관리, 자아 회복 및 지역사회 개발 참여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주는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

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커피당 15만 원. 알콩달콩 부부학교는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2021 여름 아웃리치 설명회 개최

온라인과 오프라인(국내 이주민) 아웃리치 병행

2000선교본부가 공동체 리더십과 선교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주일)부터 11일(화)까지 '2021 아웃리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공동체 여건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온라인 아웃리치와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한

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교체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권면하고 있다.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원하는 공동체는 2000선교본부에 문의하면 사전협의가 된 29개 이주민교회와 연결해 준다.
문의: 02-23215-3244

대전, '러빙유 비대면 전도 킷 가스펠'

16일까지 참가신청, 24일부터 '러빙유 킷' 배송

온누리교회 대전 캠퍼스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도방식인 '러빙유 비대면 전도-킷 가스펠' (이하 러빙유 킷 가스펠)을 개최한다. 러빙유 킷 가스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전도가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한 전도방식이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웃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신청하면 교회에서 '러빙유 킷'을 배송한다. 러빙유 킷에는 간식 및 생활용품, 기록OTT '풍당' 브로셔, 사영리, 온누리신문, 사랑의 카드 등이 들어있다. 5월 16일까지 러빙유 킷 가스펠 참가 신청을 받는다. 러빙유 킷은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3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헌혈증 890장 기증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

온누리교회가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890장을 기증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 이어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지금도 크리스천들과 함께 헌혈 나눔을 이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www.blooddonation.co.kr)에 접속해서 헌혈 참여 인증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 국내 크리스천 1만1,854명이 헌혈 나눔에 동참했다(5월 14일 기준).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에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38개 교회 및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 홍혜영 기자

대학청년부 5월 특별 예배

'결혼과 가정' 주제로 전문가 강의

대학청년부가 5월 한 달 동안 '결혼과 가정'을 주제로 특별 예배를 드린다. 이백용 장로, 송지혜 권사(《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저자) 부부가 요셉청년부에서, 김성목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한은경 권사(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

장) 부부가 여호수아청년부에서 강의한다. 이요셉 작가(《결혼을 배우다》 저자)는 Pole2대학부, 갈렙청년부, 하늘대학부, 허브대학부, 갈렙청년부에서 강의한다. 김숙경 소장(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은 W청년부, J4U청년부에서 강의한다.

사랑부 부모 온라인 세미나

5월 25일 오후 8시 줌(Zoom)

장애인사역본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낙심한 사랑부(장애인에배공동체) 부모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랑부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5월 25일(화) 오후 8시 줌(Zoom)으로 열린다. 안

희진 목사(상담학 박사, 디에셀트리 심리상담센터 대표)가 '비장애 자녀 케어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지난 5월 11일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안희진 목사가 '코로나 팬데믹 우울증 진단과 극복'을 주제로 강의했다. 문의: 02-3215-3533

아름다운 동행 수료 간증



/ 이기훈 집사(동대문 중랑공동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며 산다고 자부했다. 그런 나에게 아내가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아내의 제안이 조금 의아했다. 나는 아버지학교 스테프로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공동체 다락방장, 순장 등 직분에 순종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동행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갈망하는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큰 기대 없이 아름다운 동행 과정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동행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Finding Self’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와 어머니, 시댁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화까지 내면서 나를 몰아붙였다. 아내는 더욱 열을 내면서 결혼 초부터 쌓이고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던 나도 화가 났다. 참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와 화해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분이 풀리지 않은 눈으로 독설을 계속 퍼부었다.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나는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보았다.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아픔보다 결혼 후 겪었던 일들이 아내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아내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었다. 아내가 불쌍하기까지 했다. 어색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아름다운 동행 과정을 들었다. 폭풍이 지나고 참가한 프로그램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완벽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아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내 착각이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모습이 필요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지금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발전적인 부부가 되는 방법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가정을 주셨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배려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로 거듭나고자 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부딪힐 때도 많겠지만 이제는 부부 회복의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조금은 수월하게,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와 함께 이 모든 시간을 걸어와 준 아내 김은기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프림덤스쿨 수료 간증



/ 임은아 성도(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나는 절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님인 아빠와 결혼했고 나를 임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엄마의 행복은 아빠의 술과 도박, 여자 문제로 인해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10살 때 엄마는 새 아빠를 만나 재혼했지만 새 아빠는 틈만 나면 폭력, 폭언과 협박을 했다. 주식과 여자 문제로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렸고 엄마는 그렇게 또 이혼을 했다.

나는 끔찍한 새아빠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결혼을 택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결혼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형님이 구안와사가 와서 입이 돌아갔고, 시어머님의 당뇨합병증이 잇몸으로 와서 멀쩡했던 이가 다 빠져 버렸다. 시아버님 회사에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에 잘 못 들어와서 망조가 들었다며 모든 원망을 나에게 돌렸다. 빛이 점점 늘어나고 남편은 게임과 포르노에 중독되었다. 분노조절장애로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며 아이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쏟아부었다.

나는 프리덤스쿨 6기생이다. 처음 프리덤스쿨에 왔을 때만 해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나쁜 아이라서 생긴 거라고 여겼다.

용서(容恕)

늘 죄책감과 정죄감을 안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 내가 나를 더러운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재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를 학대한 새아빠를 용서하고, 아이들과 나를 아프게 했던 남편을 용서했다. 내 결혼생활과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시어머님도 용서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것이 있다. 용서는 ‘억울한 자의 특권’이자 ‘악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용서를 선포할 때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한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셨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프리덤스쿨에서 정말 많은 회복과 기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이현희 성도(한마음공동체)

회복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내 나름대로 성화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관계기술훈련을 받고 스테프로도 섬기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아이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이하 파워임팩트) 첫 강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증상’에서 아직도 해당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보면서 성화의 분량이 남아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갈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스스로 제한하고, 아이에게 나처럼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압박해왔던 것 같다. 아이가 나와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노회태 목사님의 강의에서 미술영재가 그림을 포기하게 된 과정을 들으면서 큰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아팠다. 큰아이도 강의 속 미술 영재처럼 그림을 참 잘 그렸다. 하지만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다른 수강생들과 비교하면서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미술을

포기했다. 그 이후 큰아이는 오랫동안 방황했다. 미술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큰아이가 교내 그리기 대회에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참가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을 따라 펜 하나 들고 참가했다. 그 대회에서 큰아이는 미대 임시생들을 모두 제치고 대상을 받았다. 나는 더욱 아이에게 미안했다. 아이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나쁜 아니라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말씀 앞에 순복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며 정신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박성덕 소장님의 부부관계 강의를 들으면서 부부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무엇을 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반석, 샘물 선교사(동남아시아 O국)

선교지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저희가 있는 동남아시아 O국은 지금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학원 허가가 나서 3월부터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학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나라의 수도에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 리더십과 지난해 7월부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차후 함께 교회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리더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셀을 통한 교회 개척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에서 해왔던 사역입니다. 그곳에서는 안 믿는 전도대상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친구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성경공부를 하다가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소그룹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의 사역을 했습니다. 소그룹교회를 개척하고 소

그룹의 구성원이 또 다른 소그룹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한국의 동장 같은 라이반이 있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통제합니다. 라이반에게 허가받은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전도와 양육, 교회 개척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5월경에는 새로운 전도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3명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진 현지 결혼식을 구경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곳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신랑신부를 축복하고 함께 춤을 추며 즐깁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만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칼럼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의 거룩한 부르심



육동건 장로
(일대일 제자양육
어린이 양육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통로로 이 땅에 가정과 부모를 만드셨다. 이는 자녀에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일러주는 말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 부모에게 맡겨진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상처 난 그루터기가 아니라 자존감이 넘치는 튼실한 생명 나무로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병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 우리의 가정이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자녀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심고, 자라게 하고, 가꾸는 은혜의 텃밭이 되게 하자.

팬데믹으로 인해 4차 산업의 혁명적 변화가 앞당겨졌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신선한 기쁨 부음이 요청된다. 기독교의 영적 자산인 십자가와 부활이 지닌 미역설의 미학은 영원히 빛날 기독교의 진리이다. 역사의 창조자가 말씀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날 선 견으로 오늘날 AI기술로 대표되는 시대정신을 찢러 쪼개야 한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정신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충격과 진동을 일으켜서 이 세대를 흔들며 깨우고, 시대를 관통하며,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성경적 관점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창을 활짝 열게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대를 이어 자녀를 양육하도록 명하셨다. 수직적 문화 전수 방식을 통해 신앙 유산의 계보를 뿌리내리라는 명령이다. 수직적 제자양육의 모델인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오래 기다려 주는 양육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양육한 자녀가 다른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30년이 지나야 하고, 그것이 가정문화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육자인 부모는 말씀 양육권과 자녀 축복권을 가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문화의 모판에 작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뜻을 내리고 기쁜 마음으로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로 형성되도록 부모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도록 하자.

자녀는 흙으로 빚어 이 땅에 출산시킨 하나님의 결작이다. 여차하면 부서지기 쉬운 흙이 보석같이 단단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생명력을 갖춰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고, 그들의 가슴에 하늘의 바람인 성령님의 신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산돌(生石)이 발하는 참빛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행복한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로 구축되고, 부모와 자녀를 힘차게 응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신바람 날 것이다.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자.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디다”(눅 2:52).

권사칼럼

나의 어머니



성진양 권사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나의 어머니는 성경이 말하는 참 과부시다. 39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셨다. 어머니는 올해 83세다.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늘 새벽예배를 다니셨다. 순장과 성가대, 중보기도 인도자, 장례사역을 섬기셨다. 20년 넘게 글로리아 합창단 단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젊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를 60년 넘게 섬기셨다. 버스를 두 번씩 같이타고 다니면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늘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셨다. 또한 나의 어머니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하시며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셨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동행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였다. 없는 살림에도 목회자들을 챙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긍정의 아이콘이시다. 어머니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어머니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자 기적이다.

어머니의 일생을 보고 들으며 자란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

르지만 주 안에서 누구보다 부요한 삶을 살고 계신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다. 내게 큰 믿음을 전수해주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

어느새 백발이 되신 나의 어머니. 어머니에게 나는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는 딸이다. 어쩌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하소연한다.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셨는지 여쭙보면 어머니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께 자녀를 양육하는 법,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다.

어머니께서 언젠가 내 나이를 들으시고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냐”고 물으셨다. 어머니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세월을 보고 자란 자녀들과 손주들이 믿음을 배웠다. 어머니는 늘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삶의 의미인 것을 보여주셨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 살고 싶다.

이 땅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신 어머니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어머니들의 기도로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세대에 물려 줄 믿음의 유산이 부실한 작금의 시대를 회개한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은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한다. 이제 다시 어머니들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 나라의 재건, 거룩한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들을 따라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자녀들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신앙에세이



김상수 목사
(온누리교회
대전 캠퍼스)

일반적으로 대형교회들이 전도를 잘 못한다는 오명이 있었다.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불신자가 아니라 수평 이동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트렌드의 전도방법들이 나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해서 개인 전도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개인 전도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 전도가 사람과 사람이 인

격적인 관계를 맺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염시킬 수도 있기에 자유로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딜레마이다. 예배와 친교, 전도에서 대면적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명사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존 파이퍼 목사는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에 찾아왔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전염병 환경 속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의 선교와 그가 구원할 자를 쉬지 않고 찾고 있다.”

역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전도는 멈출 수 없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 시대의 슬기로운 전도 방식을 고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전 캠퍼스(이하 대전 온누리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러빙유 비대면 전도 킷 가스펠’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은 도심 속 빌딩에 있어서 지역사회로 다가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빙유’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주변 이웃과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로 맞춤 기획했다. 일반적인 주일예배와 다르게 과감하게 문을 낮춘 게 특징이다. 구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의 간증과 마음에 외닿는 음악과 전도 메시지가 이어진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지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성도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켰다.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에서 새로운 방식의 러빙유 ‘킷 가스펠’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인 언택트 시대 맞춤 전도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러빙유

에서는 전도대상자의 주소지(집)로 선물(러빙유 킷)을 배송할 예정이다. 러빙유 킷에는 기독교 OTT ‘풍당’ 브로셔, 사영리, 다양한 간식 및 생활용품, 온누리신문, 주보와 더불어 사랑의 카드를 넣을 예정이다.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러빙유 킷을 포장한 다음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선물을 배송한다.

한 집사님(연구원)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전부터 스카이프나 줌(Zoom) 같은 소통방식으로 전 세계와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던 이들은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나는 코로나19 시대를 절망의 시대로 보지 않는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적 전도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러빙유는 이웃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전도방식이다.

러빙유, 더 쉽게 다가가는 전도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부모가 붙잡아야 할 복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곧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 할 때 율법적인 통제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째, 두려움을 줘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행동을 하면 다시는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 바에는 집 나가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을 통해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면 이 걸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 “이제 내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아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 너는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축복하는데 고기를 꼭 먹어야 축복이 나올까요? 이삭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에서가 들사람이 된 것입니다. 동물적이고, 아주 거칠고, 사냥만 좋아하는 인성이 형성된 것은 이삭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다주면 축복해 주고 사랑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에서는 늘 사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죽는 날까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수치심을 줘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의심스럽다. 후회된다. 네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망신시킬 수 있지?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보상, 수치심으로는 결코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십자가의 용서요, 사랑입니다. 화개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셋째,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부모가 그리스

도 안에 거하는 길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랑은 경험하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줄 사랑이 없습니다. 원가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버림받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받지 못한 것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 속에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부모만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뿐입니다. 자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길뿐입니다. 모든 가정은 깨어져 있기에 그 깨어짐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체험하는 관계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체험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이끈 사람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졌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남편하고도 다툼없이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신한 여인이었습

니다. 아들이 방탕한 인생을 살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고, 아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니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거스틴이 함께 여행하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듣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네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모니카의 삶의 목적은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신학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 교회에 많은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중요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만일 어거스틴의 신학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리적 뼈대가 형성되어야 할 시점에 중세로 들어갔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같은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성공을 기대하기보다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또 자녀의 실패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사랑으로 붙잡아 주며,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소망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모의 소명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합니다. 부모됨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가 보낸 편지



이석열 선교사
(NGO 더멋진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불리는 남동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석열 선교사입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한 반도의 2/3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국민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옥한 땅이 부족해서 대부분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년 넘게 섬기고 있는 ‘포스트 마쉴라니(POST MASULANI)’ 마을은 약 700여 가구 3,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골 마을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추구하는 사역은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개발 선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의 필요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도록 도우며 개개인의 총체적 변화(신

체, 정서, 사회, 영적)를 일으켜 그 안에 복음이 녹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업교육과 양계, 건축,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영유아개발)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받는 것에 익숙해진 아프리카 사람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매번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을 개발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마을 주민들은 개조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산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해 6월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을 포함한 3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리 공사를 했습니다. 다리가 세워지기 전에는 보건소와 시장 등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 편의시설이 있는 외부로 가기 위해서 3개 마을 주민들이 평균 8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유일한 지름길인 돌다리는 무릎까지 오는 얇은 도랑에 있어서 우기만 되면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18년 저희가 마을에 왔을 때부터 마을위원회에서 다리 공사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알리고 주민들이 다리 공사를 준비할 때까지 2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3개 마을 주민들이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좋을 만큼 돌과 모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별로 순번을 정해서 부녀자들은 모래를 모으고, 남정네들은 돌을 깎았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를 제공했습니다. 공사 뒷정리도 3개 마을 주민들이 했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6월, 3개 마을 주민들이 비가와도 걱정 없이 오갈 수 있는 다리가 완공했습니다. 3개 마을을 관할하는 시니어 대추장이 “외부로 나가는 길이 좋아져서 마을 경제도 활성화 됐다”면서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을의 문

제해결을 위한 자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기력하게만 보이는 이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주민들을 의심했던 저희도 성령님께서 주민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라위도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사키트 부족과 방역체제가 미흡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NGO 더멋진세상 후원약정에서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오늘도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더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덩



챌린지 기간 5.22(토) - 6.20(일)

‘달려라! 풍덩’ 후원금은 전액 기독 OTT 플랫폼 <풍덩>의 어린이 콘텐츠 제작 및 허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챌린지의 시작을 함께 해요! “스페셜 라이딩”

일자 5월 22일 오전 11시~오후 4시 중 자유참여
코스 서빙고-양재 5개 구간

참여방식 구간별 자유롭게 참여(라이딩, 도보, 달리기 등)

신청 챌린지 신청 시 7번 스페셜라이딩에 표시

챌린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CGNTV 웹사이트 참고



챌린지 문의 02-796-2243

CGNTV 후원기획실

<< CGNTV 바로가기

🚲 풍덩맨을 만나세요

스페셜 라이딩 구간에는 풍덩맨들이 있습니다.

물과 에너지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풍덩맨 3명에게 도장을 받으면 기념메달과 기프리콘 선물을 드립니다.

* 풍덩맨들은 대학청년부 지체들입니다.

서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이 우선입니다.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세요.



후원 및 협력

서울극장 금호석유화학 메리디안디앤아이 SJ오일(주)
(주)한양철강공업 더헬스인베스트먼트 (주)미진시스템 메이비원(주)
(주)빅스바이트 경도화학공업(주) (주)리빙라이프 (주)지메스씨글로벌세이프
(주)엘엔피코스메틱 일신화학공업(주) BMTRADING (주)롤랄라
CGNTV여성운영위원회 박희숙 작가 트레이너 정주호

홍보대사 가수 이무송 주최 CGNTV 주관 CGNTV 운영위원회

